

시론



주정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모두가 대학이 위기라고 한다. 대학의 가장 큰 위기로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저출산으로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줄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도 떨어져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학에 다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대학이 당면한 위기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대학이 시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찾을 수 있고, AI가 맞춤형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연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학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지식을 축적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과 AI가 교육과 지식축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AI는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특이점(Singularity)'의 시기를 지나면 대학의 연구

AI 시대, 대학의 위기는 무엇인가?

기능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이 시기를 2029년쯤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역사를 보면, 대학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지 못해 위기를 겪은 경우가 있다. 12세기에 폭발하는 고등지식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출발한 대학은 중세시대를 지나며 인문주의 부흥과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학은 근대 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과학 기술의 혁신을 이끌지 못했다. 대학이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그 기능을 다른 사회기관이나 국가가 담당했다. 결국, 18세기에 이르러 대학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회와 괴리를 극복해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근대 대학이 경험했던 역할과 기능 상실은 현재 우리 대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의 대학이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리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 모든 영역에서 사회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 혹자는 우리 대학을 "19세기 교육방식으로 20세기 교육자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대학이 사회의 요구와 수요에 꼭 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존재 그 자체로 지식의 전당, 공동체 교육의 산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자 역할을 한다. 대학이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 자체가 미래 동력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이 시대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 영역만 놓고 볼 때, 대학이 기술과 산업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이 시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대학이 원천기술 개발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요구와 필요를 쫓아가는 모양새다. AI 시대에 논란이 될 사회 윤리나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영역은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훨씬 앞서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대학들이 기존대학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중심 대학은 기존대학의 형식과 제도, 그리고 틀을 뛰어넘은 교육과 연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일부 대학은 인터넷과 AI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현장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하고, 기업 및 국가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대학의 규모가 축소되고, 자원이 줄어드는 것만이 위기가 아니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흔쾌히 답을 못하는 것이 진정한 대학의 위기이다. 이제라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식축적과 전수방식을 바꿔야 한다. 많은 대학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어 더 큰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의 본질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이 고유역할을 찾아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승차권 구입에 카드 결제 안되는 불편한 광주 지하철

광주 도시철도 역사 내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가 카드 결제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일상화된 지 오래지만 이곳의 사정은 다르다. 교통공사가 내부적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었는데,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수백만명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계를 보면 2021년 314만여명, 2022년 336만여명, 2023년 354만여명으로 증가 추세다. 할인권과 우대권을 제외한 보통권은 2021년 30만7천여명, 2022년 32만7천여명, 2023년 29만3천여명이다. 광주교통공사는 2004년 운행 개시와 함께 현재까지 20개 역에 96대의 승차권 발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1회용을 구입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시 현금만 가능하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금을 인출할 은행 ATM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최근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할 발매기로 순차적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

1회용 승차권 주 이용객인 외국인과 어린이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교통공사 측도 출·퇴근길 등 인파가 몰리는 역사를 대상으로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발매기가 '공공 재산'인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정책상 교통카드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한 한계도 토로한다.

시내버스, 택시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의 발'이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러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다. 누구든지 지갑에 카드 몇 장 정도를 소지하는 게 보편화된 시대다. 현금 보유가 조금 번거롭다고 느끼는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일정이 지연되긴 했으나 도시철도 2호선도 2028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1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객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의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 시민들은 카드 결제를 원한다. 광주교통공사의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동 건 세계관광문화대전은 전남 도약의 마중물

천혜의 자연 경관과 청정 먹거리, 풍부한 문화 유산자원을 활용한 전남지역 축제가 연중 100여 개 이상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전국적으로 25개로 8개가 줄었지만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외에도 목포항구축제가 추가로 신규 지정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남도가 경쟁력있는 로컬 관광·문화자원을 통합 브랜딩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다.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4-2026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문화대전은 지난해 '전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전국대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수목비엔날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역대급 행사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5개 분야 13개 실행과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축제·둘레길 분야는 도내 주요 축제를 유사한 주제로 유명한 국외 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으로 올해는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물축제', '함평 국향대전'과 베트남 '럼동성 달맞이꽃축제'가 대상이다. '남도미식' 분야에선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연계한 2024 주류페스타가 주목된다. '웰니스' 분야는 천년 사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템플스테이, 음식 체험, 스니퍼의 토크 콘서트 등을 마련, 세계 명상시장을 선점한다. '남도 케이(K)컬처'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국내의 관광객, 다문화가정 위주로 증가 스테이, 음식·다도체험, 인문학·역사알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

글로벌 전남관광 행복시대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올해부터 3년간 관광문화대전이 성황 속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보다 명확한 정체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주민이 주도하는 전문문화 보존 계승 노력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 불가의 콘텐츠 구축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고유의 멋과 맛을 알려 '다시 찾고 싶은 매력 도시'의 꿈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기고



박장순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봉사(奉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애쓰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봉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가 아니다. 현대인은 광속(光速)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타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에 매진하기도 여념이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 사회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외되고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이 요소요소 많이 존재하고 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보거든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성경 말씀과 '가장 어두운 곳을 밝은 빛으로 먼저 밝히면서 중생을 두루 굿어살피라'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봉사는 종교를 초월한 사랑의 첫걸음이자 실천이다.

필자는 28년 전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산업체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매주 화요일 휴무일에는 보육원, 군부대, 양로원, 사회복지관 등 정기적으로 이·미용 봉

봉사정신을 함양한 미용인의 새 출발

사활동을 실시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재능 기부나 봉사로 칭하기에 다소 민망하고 부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숙달된 기술을 지닌 미용실 원장이나 헤어디자이너가 행하는 봉사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스텝 시절 다니던 봉사활동은 숙련된 미용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연마의 일환이며 '미용 봉사'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한 면이 있다.

물론 지역 내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나 어르신을 찾아가 미용 봉사를 통해 사랑을 전달하는 고귀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미용업의 입문단계에 있는 미용인이 정기적으로 미용 봉사를 다니면서 기술을 연마해 경력에 충적돼 디자이너로 승격된 이후에도 꾸준히 미용 봉사를 다니는지는 의문이 든다. 설명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미용인이 있다. 단순 처도 급격히 감소한 수일 것이기에 자물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의 소속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학생들도 학과장의 인솔하에 학교 인근 재활병원과 대촌 행정복지센터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미미환경에 부합하는 특화된 전문성을 함양한 미용 실무인재로서의 기본적 직무역량 학습과 동시에 효(孝)와 인성을 갖추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조(自助) 정신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미용 봉사를 함으로써 부모님 공경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인격도 됨으로 갖추게 될 때 동시에 '열정 교육, 감동 인재, 책임 취업'이라는 송원대학교의 추진 전략에도 부합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필자는 현재 성당 내에서 사회복지분과장의 봉사직을 수행 하면서 성당 구역 내 거동이 힘든 신자 맥을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 필자의 전공을 살린 이발과 헤어미용 재능을 기부하고자 한다. 자동차 기름값이나 일체 수고비 등 경제적 후원이 필자의 개인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미용 봉사를 추진 중으로 봉사 후 기금 저 밑에서 우리나라는 호뭇함과 사랑 실천의 따스함을 생각하면 행복하기 그지없다.

봉사를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가 깊은 인간 사랑의 발로(發露)이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기시미 이치로(岸見一朗)는 "행복의 정의는 공헌이다. 즉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관적인 감각이다"라고 했다. 공자께서도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용인들도 바쁘고 힘든 일상의 시간을 쪼개고 할애해 내 주위 이웃에게 미용인의 재능을 기부한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윤택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한다.

독자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해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대한민국 또한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또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 소음 측정은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지역에서 낮 시간대 등가소음도는 10분간 75데시벨 초과,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세 차례 95데시벨을 초과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집회·시위 동안 소음을 일정한 시간(10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법질서 준수 절실

분) 측정하고 소음치의 평균을 구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유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절차로 관리하고 있다.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뉴욕 경찰의 경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전원 현장 체포가 가능하며 일본경찰은 집회시위 중 화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관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또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위법할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제지함으로써 다른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불법 폭력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우리 모두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유용하·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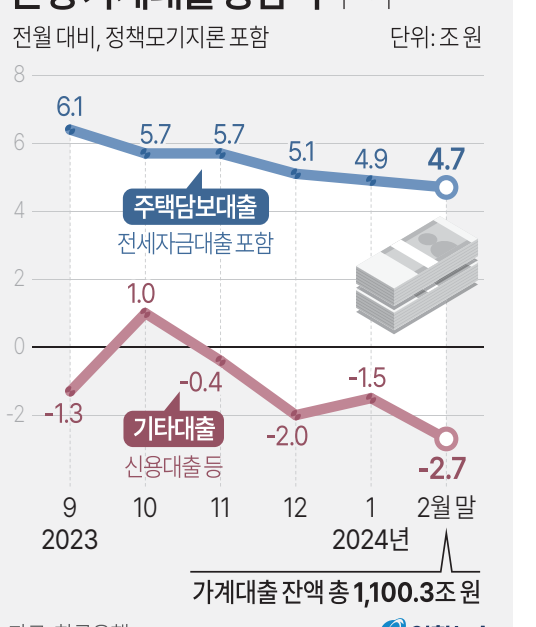
지난달 은행 주담대 4.7조 ↑ ... 2월 기준 역대 세번째 증가 폭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약 5조원 가까이 또 늘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만에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0조3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4월(+2조3천억원) 반등한 뒤 11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00조원)이 4조7천억원 늘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2020년(+7.8조원)과 2021년(+6.5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1조8천억원 줄었다. 작년 3월(-6.5조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천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1월(+4조1천억원)보다는 줄었고, 기타대출(-5조5천억원)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은행가계대출증감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연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단)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